



아름다운 사람

유효순 코디네이터



기증자 김수현님 과 유효순 코디네이터

“저,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작년 봄, 전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시원시원한 목소리였다. 유전자 일치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전화를 준 것이었다.

목소리만큼이나 시원하게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본인이 기증으로 인해 힘들지 않을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투병중인 환자 걱정거리들을 늘어놓았다. 걱정의 목소리까지 듣고 있으니 내가 마치 환자가족이 된 것처럼 무척 고맙고 또 고맙게 느껴졌다.

전화 이후 확인검사를 위해 경희대 헌혈의 집에서 만나게 되었다. 헌혈의 집에 들어서서 기증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헌혈의 집 간호사님들은 모두 김수현씨의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다. 알고 보니 헌혈을 무려 100회 이상 해오고 있었고, 주로 헌혈을 하던 장소였던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헌혈의 집 선생님들을 통해 듣고 있던 중 김수현씨가 도착하여 확인검사용 혈액채취를 잘 마치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확인검사 결과가 나오기 며칠 전 협회로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헌혈의 집이었다. “김수현씨가 헌혈을 하겠다고 왔는데 가능한가요?” 평소 헌혈을 정기적으로 하는 습관 때문에 헌혈의 집을 찾은 것이었다. 기증진행 중엔 기증자의 건강보

호를 위해 헌혈은 삼가토록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후 귀가토록 도와드렸다. 얼마 있지 않아 환자와 HLA가 잘 일치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어 기증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또 한번 나를 걱정스럽게 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 평소 반주를 즐겨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건강검진 결과 간 수치가 높게 나와 다시 검사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재검사 결과를 받아 본 후 정상이라는 얘기에 병마와 싸우고 있을 환자와 환자가족들을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 드디어 기증 당일 수술방에서 병실로 올라온 김수현씨는 괜찮냐는 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feel so good~!”이라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해 그 대답의 진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긍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보통은 지혈을 위한 모래주머니를 많이들 힘들어 하는데, 꼭 잘 참아내고 마취회복도 잘 되어 기증은 무사히 끝날 수 있었다. 기증이 진행되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아버님의 병환 중에도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김수현씨께 이 글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기증자 코디네이션을 하다보면 무척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환자의 완치를 바라며 기증에 참여하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 어

떤 이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을 하면서 그 도리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그 소중한 선택은 지금도 작은 병실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기에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지금까지 기증에 참여해 주신 기증자분들께 존경을 표하며 이 글을 마친다.

